

# 가벼워지는 망사리... 멀어지는 바다

[발로딛는제주잠녀]한림읍 수원리

등록 : 2007년 02월 04일 (일) 16:01:11  
최종수정 : 2007년 02월 04일 (일) 16:01:11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최우수 잠녀 3명을 배출할 정도로 잠녀하면 빼놓을 수없는 한림읍 수원리 <김대생 기자>

“이어도새나/헤/어어도새나/하/깊은 바다 물질하면/깊은 아픔 알건만은/.../기구야 가자/하/갈디가게/헤”

올 겨울은 다른 해와 달리 먼 바다가 까맣다. 그만큼 잠수들의 맘이 바빠진다는 말이다.

이웃 한림·한수와 달리 수원리 잠녀들의 바다는 물 샴터와 가까이 있었다. 겨울바람이 조금 매섭다 싶으면 어김없이 큰 파도가 생겨 물질이 어려운 탓도 있지만 갈수록 줄어드는 물건들로 ‘반농반어’의 생 활패턴이 더 뚜렷해졌다고 했다.

△갈수록 가벼워지는 망사리, 잠녀 고령화 뚜렷

잠녀에 대한 운을 떼자마자 고태련 수원리 어촌계장(70)은 “잠녀하면 수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高) 고인화씨 외에도 이정연 할머니와 양순옥씨 등 최우수잠녀만 벌써 3명을 배출한 곳이라는 설명이 뒤따른다.

125만1000㎡의 너른 어장 면적만 놓고 봐도 잠녀들의 활동 영역만큼 활발했을 자맥질이 눈에 선하다.

수원의 상시 잠녀는 50명선. 툇·천초 작업을 할 때면 65명 남짓한 잠녀들이 바다에 나선다. 하지만 이 중 50대 4명, 60대 10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70대로 고령화가 뚜렷했다.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비양도 9개리 공동어장 작업에 수원리도 참가하고 있지만 옹포·한림·한수와 달리 마을 어장에서의 작업이 더 많다고 했다.

비양도 공동어장 작업은 출잡아 2~3일이 전부, 8·9·10물을 제외하고 작업을 하지만 겨울은 한달 한번 작업도 어렵다.

고 어촌계장은 “지형 특성상 바람이 불면 파도가 세서 작업이 힘들다”며 “금채기(7~9월)를 빼고, 물건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1년 95일 정도 작업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양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짐짓날에서 주로 수확하는 것은 소라와 전복. 이곳 역시 한수리와 마찬가지로 계통출하가 되지 않는 작은 크기의 소라를 자체 구매해 양식장에서 키운다고 했다. 2005년 가을 해삼 종패를 넣는 등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했지만 아직 그 성과는 확인하지 못했다.

지금껏 공동작업을 하고 있는 툫 역시 지난해 한사람당 25만원 정도 나뉘고, 2~3년전만해도 공동작업을 하던 전초는 물량이 줄어들고 잠녀들의 나이도 고령화되면서 개인 작업으로 바꿨다.

△가까워진 바다, 그러나 물으로…

삼군잠녀의 연수입이 1000만원 안팎. 생활력이 강한 잠녀들인 만큼 상대적으로 수입이 좋은 발작업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겨울채소 소득이 좋아지면서 이맘때면 쪽파와 브로콜리, 양배추 작업에 잠녀들이 쏠린다.

예전에는 바깥물질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거의 마을어장 작업에만 매달리고 있다.

고 어촌계장은 “예전이면 10월 양식장 해경 때 삼군 잠녀들의 망사리가 몇차례나 가득 채워지곤 했다”며 “지금은 3~4년전과 비교해도 절반 이상 물건이 줄어들었으니 말 다한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양식장 작업을 한다고 해도 ‘좀 한다’하는 잠녀들은 먼바다로 나가 작업을 한다”며 “잠녀들이 물속에 들어가면 ‘하얏다’ (백화현상)고 할 정도로 바다가 많이 황폐해 졌다”고 말했다.

‘속상하다’고 내놓아 말할 수 있는 바다 사람들과 달리 바다는 아무런 말이 없다. 이전 잠녀들이 하루를 살던 바다는 생명력이 넘쳐 흘렀지만 지금은 뭔가 다르다.

연거푸 육지로 토해내는 파도에는 이전 친근함 대신 왠지 모를 냉기가 감춰져 있다. 어쩌다 바다로 나선 사람에게도 이러한데 한평생 바다에서 생활을 견져온 잠녀들에게 그 느낌은 어떠할까. 길게 물음표가 남는다.

‘발로 딛는 잠녀들의 삶’ 다음 이야기는 한림읍 귀덕2리이며, 관련 내용은 해녀박물관 홈페이지 ([www.haenyeo.go.kr](http://www.haenyeo.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